

# 은퇴논란 잠재우고 **보았느냐, 노장 투혼** 부상악몽 이겨내고



## KIA 우승 '숨은 MVP' 이종범·이대진

드라마보다 더 짜릿한 승부가 펼쳐진 2009 한국시리즈에서 또 다른 전설이 된 두 영웅이 있다. 1993년 입단 동기 이종범과 이대진. 입단 첫 해 한국시리즈 무대를 누볐던 두 동기는 1996년과 1997년에도 팀의 우승을 이끌며 영웅이 됐다. 그리고 2009년 KIA의 10번째 가을전설에 두 동기는 다시 함께 했다.

팀의 최고참과 마운드 최고참 선수로 후배들을 이끌어온 두 노장은 우승이 확정된 뒤 눈물을 흘렸다. 우승의 감동과 함께 이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 겪어야 했던 힘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기 때문이다.

2009년 두 노장은 전력과 선수였다. 이종범은 시즌 전 은퇴논란에 휘말리며 깊은 좌절감을 맛봤다. 전지훈련지에서 필사적으로 땀을 흘렸지만 이용규, 김원섭, 나지완, 채종범, 장성호 등 치열한 외야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종범을 보는 시선은 반신반의였다.

그러나 '무한경쟁'이 예고됐던 외야는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황무지가 됐다. 노장 이종범은 팀 빈 외야를 지키면서 위기의 팀을 지탱했다. 팀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도 이종범이었다.

그리고 12년만에 찾아온 한국시리즈. 부동의 톱타자에서 6번타자로 위치는 바뀌었지만 '야구천재'의 모습은 여전했다. 1차전에서 이종범은 두 번이나 승부를 뒤집는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5-3의 짜릿한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SK의 거친 공세가 이어질수록 누구보다 속이 탔던 이도 역시 이종범이었다. 허리부상에 불구하고 이종범은 7차전 다시 한 번 방망이를 들었다. 걷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12년의 기다림을 위해서 경기장을 누볐던 이종범은 6회 차일목에게 타석을 내주고 덕아웃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가슴 졸였던 이종범은 우승이 확정된 후 가장 속을 태웠을 이용규를 꼭 안은 채 굵은 눈물을 쏟아내 사람들을 울렸다.

이종범은 "예전에 우승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후배들하고 고생하면서 7차전까지 왔다"며 "그래서 더 눈물도 많이내고 기뻐다"고 눈물의 의미를 설명했다.

1997년 한국시리즈에서 2승을 거뒀던 이대진에게도 2009년의 우승은 더 눈물겨웠다. 공들여 2009시즌을 준비했지만 첫 등판이었던 4월10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3이닝 동안 4실점을 했다. 두 번째 등판에서는 5이닝 4실점을 하며 2패를 안았다. 1년 사이 부쩍 자란 후배들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은 이대진은 2군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하지만 윤석민의 부상으로 얻은 뜻밖의 등판기회에서 이대진은 5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팀에 승리를 선물했다. 9월11일에는 한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100승을 채웠다.

그리고 지독한 부상의 악몽속에서도 단 한 번도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대진은 12년만에 한국시리즈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1997년 10월19일 LG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 승리투수 '에이스 오브 에이스' 이대진은 꼭 12년 만인 2009년 10월19일 백전노장이 되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12년의 세월, 힘겨웠던 부상과의 싸움속에 감속구는 사라졌지만 야구에 대한 간절함과 노련미를 더한 이대진은 1과 3분의2이닝동안 피안타없이 2개의 삼진을 뽑아냈다. 1선발에서 패전조가 되어 돌아왔지만 마운드에 서있는 자체로 행복했던 이대진이다.

이대진은 7차전 마지막 출격을 준비했다. 피말리는 접전이 벌어졌던 이날 5차전 완봉승의 주역 로페즈도 마운드에 올랐고, 전날 선발 윤석민도 볼펜에서 몸을 풀었다. 9회가 진행될 때 마지막까지 볼펜을 지키던 이는 한국시리즈 통산 3승에 빛나는 노장 이대진이었다.

이대진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마운드에 오르고 싶었지만, 내가 등판하는 경우는 팀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때문에 그대로 경기가 끝나기를 바랬었다"며 "오랜만에 우승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종범  
후배들 독려 팀 구심점  
KS 1차전 승리 주인공

■ 이대진  
행운의 등판... 100승 채워  
12년만에 우승 감격 눈물

## 안치홍, 내친김에 신인왕까지

오늘 기자단 투표... 이용찬·홍상삼과 3패전, MVP는 김상현 확실

올해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왕을 뽑는 기자단 투표가 27일 오후 2시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다.

2009 프로야구는 KIA가 24일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패권을 탈환하면서 막을 내렸다. 공식 행사로는 MVP 및 신인왕 투표와 12월11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만 남겨졌다.

KIA의 해결사로 홈런(36개)과 타점(127개) 부문 2관왕에 오른 김상현(29)이 MVP를 차지할 것이 유력하고 이용찬(20)과 홍상삼(19) 양자 구도로 흐르던 신인왕은 한국시리즈에서 맹활약한 안치홍(19)이 가세해 삼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상현은 MVP 후보에 오른 김광현(SK) 김현수(두산) 박용택(LG)을 선적에서 앞섰다.

알짜 타이틀인 홈런과 타점에서 이승엽(33.요미우리 라이온즈)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김상현이 수확한 36홈런과 127타점은 모두 이승엽이 2003년 작성한 56홈런, 144타점 이후 가장 많다. 장타율도 0.632로 가장 높았고 득점권 타율도 0.403으로 전체 1위에 올라 최고 해결사로 맹타를 휘둘렀다.

특히 8월에만 홈런 15방을 몰아쳐 KIA가 12년 만에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짓는데 결정적인 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다.

관련 최우수 신인선수 후보는 안치홍(KIA), 고창

성, 이용찬, 홍상삼(이상 두산), 김민성(롯데) 등 5명이다.

두산의 집안 싸움에 안치홍에게 표심이 얼마나 쏠릴까가 관건이다.

2007년 입단한 중고신인 이용찬은 올해 두산의 마무리를 채우고 26세이브(2패), 평균자책점 4.20을 올려 구원 공동 1위에 올랐다.

안치홍은 시즌 타율 0.235를 때리는 데 그쳤지만 123경기에 꾸준히 출장했고 지난 7월 올스타전에서 투런포를 터뜨려 역대 올스타전 사상 처음으로 새내기 MVP로 뽑혔다. 또 역대 최연소(만19세23일) 올스타전 홈런 기록도 갈아치웠다.



김상현

안치홍

한국시리즈에서도 공수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로 힘을 보태던 안치홍은 24일 7차전에서 KIA의 첫 타점을 올렸고 3-5로 끌려가던 7회 추격의 불을 댕기는 솔로포를 터뜨려 한국시리즈 최연소 홈런(19세3개월22일) 기록도 새로 쓰는 등 2타점을 올리고 팀 우승에 앞장섰다. MVP와 신인왕 모두 총 유효표의 과반을 득표한 선수가 수상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자를 가린다. /연합뉴스

## LPGA 스타 줄줄이 입국

30일부터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파72·6천490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에 출전할 내로라하는 '골프 스타'들이 26일 입국했다.

세계 랭킹과 이번 시즌 최저타수 부문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비롯해 크리스티 커, 플라 크리머(이상 미국) 등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내렸고 신지애(21·미래에셋)와 정아니(대만)는 오후에 입국한다. 이번 대회는 아직 LPGA 투어 상금왕, 최저타수, 올해의 선수 부문 경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권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 총상금 170만 달러로 2009시즌 남은 4개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어 주요 부문의 수상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합뉴스